

광주·전남 보이스피싱 피해 급감...‘안심은 금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범죄 단속 그 이후...

10월 57건으로 올해 최저치...월평균 40%가량 감소
‘잠복기’ 종료로 11월부터 반등 조짐...“장기 대응을”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에 나서면서 광주·전남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다시 증가세가 포착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광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23건(추석 연휴 제외)으로, 1~9월 월평균 42건 대비 약 45% 감소했다. 11월 역시 16일 기준 14건에 머물며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8~9월 매주 9건씩 발생하던 피해가 △10월 13~19일 3건 △10월 20~26일

4건으로 급감했다. 전남도 10월 피해 신고가 34건으로, 8월 51건·9월 50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 ‘정부 합동대응팀’을 꾸려 국제 피싱 조직 단속에 집중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지에서 급감돼 있던 한국인 64명을 전세기로 송환한 뒤 캄보디아 정부도 본격적인 조직 검거에 나서며 국제 공조가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 역시 9월 스마트폰 기반 피싱·사기 범죄를 전담하는 ‘피싱수사계’를 신설해 해외 총책이 개입한 사건들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시민들도 채광 변화가 컸다. 50대 A씨

는 “여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쯤로 ‘1588’, ‘02’, ‘070’ 발신 사기 전화가 왔지만 최근엔 거의 사라졌다”며 “연말을 앞두고 지인 연락도 많아지는 만큼 이런 전화가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10월 말 정부 합동 대응팀의 현지 활동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곧바로 피해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광주지역 보이스피싱 신고는 △10월 27일~11월 2일 12건 △11월 3~9일 6건 △11월 10~16일 8건으로 반등했으며, 전남 지역도 같은 기간 17건·1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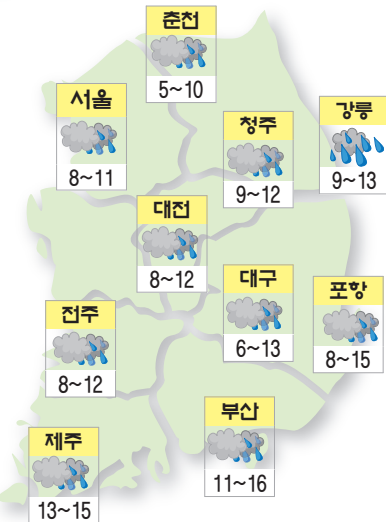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이를 해외 조직이 단속을 피해 인접 국가로 이동하며 재편 시간을 갖는 이른바 ‘잠복기’가 끝난 신호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해외 취업 사기, 고수의 알바 등으로 청년층을 유인하는 2차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로 민생 범죄에 취약해지는 시기인 만큼 수사기관과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를 확보해 위험한 유혹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적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7:17 달맞이 11:26
☁️ 맑음 17:22 달맞이 21:19



광주	☁️	8~11
목포	☁️	10~12
여수	☁️	11~13
순천	☁️	7~13
구례	☁️	6~12
광주	☁️	9~13
임도	☁️	10~14
흑산도	☁️	11~12
전남	☁️	7~14
진도	☁️	9~12

목포	밀물(고)	04:29 / 17:17
	썰물(저)	09:46 / 22:37
여수	밀물(고)	11:54 / 23:51
	썰물(저)	05:06 / 18:09

음주운전 신고자가 지명수배자

마네편 ○...경찰에 타인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광주 서부경찰은 24일 지명수배자 20대 A씨를 검찰로 인계했다고.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20대 운전자 B씨의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주행을 하자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신고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했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A씨의 지명수배 사실은 경찰이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털미가 잡혀.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조사를 마친 A씨를 검찰로 인계.

윤용성 기자 yo1404@

화순 야산서 투견 현장 적발...40명 신원 확보

일부 도주·폭력 사건도...개 9마리 찾아 보호조치

전남 화순의 야산에서 불법 투견판이 열린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화순경찰은 24일 “불법 투견 도박판이 의심되는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확보한 40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동물권 보호단체로부터 ‘투견판이 열린다’는 제보를 받고 지자체와 함께 화순군 이양면 야산 일대를 급습했다.

경찰 50여명이 투입돼 비닐하우스 형태의 비밀 투견장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단속했지만, 당시 현장에서 투견이나 도박 행위를 직접 포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주변 야산을 배회하거나 은신하

고 있던 40여명을 확인해 신원과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비닐하우스 주변 화물차 등에서는 개 9마리가 발견돼 화순군 동물보호시설로 옮겨졌다. 단속 당시 일부 무리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영상 촬영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에 따른 폭력신고 3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확보한 인원을 상대로 △투견·동물학대 여부 △승패를 건 도박 기담 여부 △현장조직 운영 정황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술을 확보하는 단계”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범의 검포를 거쳐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서구, 통합돌봄 성과 공유회 24일 광주 서구청 들불출에서 열린 ‘통합돌봄 7년의 여정과 새로운 도약’ 통합돌봄 성과 공유회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VTS 알람 수동 해제’...목포해경, 관제 과실 수사 본격화

관제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건 예정...휴대전화 포렌식도
선장, 사고해역 1000여차례 통과하며 한 번도 조타실 안 나와

전남 신안군 쪽도 해상에서 좌초한 대형 카페터 여객선 ‘퀀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과실 여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2~23일 목포VTS 관제사 A씨를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사고 전 선박의 항로 이탈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의 입건에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고 당시 A씨는 관제 대상 5척과 주변

항로 선박 3척 등 총 8척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사고 신고가 들어온 뒤에서야 퀀제누비아2호의 좌초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관제 업무 중 항로 이탈알람을 직접 끈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퀀제누비아2호의 이탈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일일항해사의 신고로 뒤늦게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퀀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5척을 집중 관리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대

형 선박의 항로 이탈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근무했던 관제사 3명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병행 중이다.

해경의 의뢰로 진행된 목포해양대학교 시뮬레이션 결과 선과 충돌하지 않으면 최소 500m의 거리가 필요하고, 이는 항로를 벗어나기 190m(죽도와 항로 끝단 거리 310m) 전에 변침을 하지 않으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양대 한 해사법학 교수는 “변침 시점은 당직항해사의 판단에 따라 다소 빠르거나 늦을 수 있지만, VTS는 선박이

항로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문제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다만 여객선이 라면 평소 속력이나 침로와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경우 반드시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관제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총괄 책임자인 C선장(60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선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C선장이 출항 이후 3시간 30분 동안 조타실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024년 2월 28일 취항한 퀀제누비아2호에 승선해 직접 지휘를 해야 하는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해경은 C선장이 협수실에서 조타실을 비운 점이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사인 씨월드고속해리는 사고 점검 등을 이유로 퀀제누비아2호의 목포~제주 운항을 오는 12월31일까지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퀀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다가 같은 날 오후 8시16분 신안군 장산도 인근 죽도에서 좌초했다.

사고 이후 병원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현재 78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유종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

광주 자치구, ‘이상기후 자연재난’ 대비 총력전

기상청, 이상저온 등 변동성 ↑...국지 폭설 가능성도
종합대책 추진...제설 자체 사전 배치·취약계층 보호

올겨울 광주 지역에 이상저온 한파와 국지적 폭설이 예상되면서 각 자치구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12월~2026년 2월 겨울철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겨울 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기온 변동성이 커, 기온 급감하에 따른 한파 피해와 지역 편차가 큰 폭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광주 5개 자치구는 자연재난 대비

태세 강화와 생활불편 사전 차단을 목표로 겨울철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동구는 제설장비 점검·운영반, 도로 제설반, 취약계층 지원반 등 분야별 전담조직을 구축해 대응체계를 정비했다. 구정·동 행정복지센터·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제설체계를 마련해 골목길·이면도로 등 생활권 위주의 제설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구는 현장 중심 사전대비와 과학적 분석 기반의 즉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기상

특보·기습 강설 등 변동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판단회의를 수시로 열어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한 발 앞선 재난 대비 및 표준 행동계획 정착’을 통해 현장 밀착형 재난관리 행정을 강화하고, 동 행정복지센터·경로당 등을 한파 쉼터로 지정해 취약계층 안전 확인 체계도 강화했다.

남구는 교통량·지역 특성에 따른 취약지 조사와 이면도로 점검을 마친 뒤 각 동별 취약지점에 제설 자재를 사전 배치했다.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결빙취약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지역 특성에 맞춘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북구는 현장중심 사전대비 체계를 구

축하고, 주민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방재기상정보시스템과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상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대설·한파 특보 발령 시 5단계 비상근무체계를 즉각 가동한다. 동시에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산 시설의 피해 예방 점검을 병행하고, 주민대상 대설·한파 행동요령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인접 지자체 및 군부대와 구축된 협조 체계를 통해 장비·인력·자재 등을 상호 지원하고, 북부소방, 북부경찰, 한국전력공사, 해양에너지 등 유관기관과 기능별 T/F를 구성 운영한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자연재난 대비 태세 강화와 생활불편 사전 차단을 목표로 겨울철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광산구는 재해영상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취약지역 상황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의 유관기관 상시 연락체계를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자연재난 대비 캠페인·점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인한 겨울철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